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 새벽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주일말씀 주제>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
그다음에 <잠언>을 전해 줘야 된다.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

<주제>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

* 설교자는 <잠언>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

잠언을 한 절,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

1. 하나님과 성령님은 끝에서 깨끗이, 미련도 없이 끝내 버리신다.

2. 선생이 ‘끝에 잘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면 무엇을 비유할
까?’ 생각하고 잠언을 쓰려고 하는데, 쓰던 볼펜의 잉크가 깨끗
이 닳아서 끝났다. ‘끝에 잘하려면, 볼펜의 잉크가 다할 때까지
쓰듯이,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하고 깨끗이 끝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

3. 끝에 잘하는 것은 그 일을 다 할 때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4. 끝에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수고한 만큼 최고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5. 끝까지 한 것은 마치 최고 높은 산 정상에 정복하여 오른 것과

같이서, 더 이상 없는 극치를 느끼고 보게 된다.

6. 끝은 최고 희망을 이루는 때다.

7. 끝은 극치의 희열을 느끼는 때다.

8. 끝은 하이라이트의 때다.

9. 끝에 미련 없이 최고로 행하고 끝내야 된다. 그래야, 더 차원 높은 다음 것을 받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된다.

10. 사랑도 끝은 없지만, 때마다 끝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잘 행해야 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은 끝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며, “죽은 자를 장사지내듯 깨끗이 하자.” 라고 하셨다. 올해 많은 것들을 장사지내고 깨끗이 했으니, 남은 것들도 역시 깨끗이 장사지내고 끝내야 된다.

12. 월명동도 여섯 개의 산에 있는 나무들을 98% 가지치기 했다. 죽은 가지와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장사지내듯 가지치기하고, 수형과 모양을 멋있게 잡아 줬다. 나머지는 남은 기간 동안 완전하게 해 놓아야 된다. 눈이 오기 전에 해야 된다. 섬리인들도 모두 때가 지나기 전에, 저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장사지내자. 그래야, 새로운 천 년 혼인 잔치 역사에 참여한다.

13. 저마다 사랑의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주를 잊지 말고, 그 몸이 되어 그와 같이 행해야 됨을 잊지 말아라.
14. 간절하고 진정한 살아있는 글과 말이어야, 듣고 행하게 되어 실체가 이루어진다.
15.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간절하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전심을 다해 설교해 주고 가르쳐 줘야, 듣는 자가 은혜를 받고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게 행하여 그 실체를 얻게 된다.
16. 기도도 보통으로 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진정으로, 간절하게 해야 상달된다.
17. 끝에 아주 흠 없이 잘하면, 평생 잘 해 놓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볼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18. 끝에는 조금만 더 잘해도 표가 난다. 경주할 때도 끝에서 조금의 차이로 승패가 좌우된다.
19. 올해의 끝자락이다. 기도해 줬으니, 모두 하면 된다. 힘내서 하자.